

Publication	Energy and Environmental News Korea
Headline	Refineries can maximize profitability with manufacturing and supply chain software.
Link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8286
Date	October 16, 2014

Summary –

AspenTech's customers include major petrochemical companies such as Shell, ExxonMobil and BP. The upgraded aspenONE V8.7 software was launched by AspenTech's Allison McNulty at a press roundtable on October 13. This version addresses challenges faced by petrochemical plants to optimize their supply chains and achieve increased visibility for better decision making. McNulty added that Aspen PIMS-AO software delivers the latest in process optimization with parallel processing, feedstock basket reduction and nonlinear modeling. This improves planning for refineries and olefin plants and helps feedstock planners achieve profitability at 8 – 10 times faster than before. This maximized profitability also provides petrochemical companies with increased confidence in planning decisions.



이투뉴스

"제조·공급망관리 소프트웨어로 정유사 수익 극대화"

신규출시한 소프트웨어 '아스펜원 V 8.7' 소개

[341호] 2014년 10월 16일 (목) 16:42:03 이투뉴스 기자 paver@e2news.com

앨리슨 맥널티 아스펜테크 이사

[이투뉴스] 쉘, 엑손모빌, BP 등 세계 메이저 정유·화학사들의 제조·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를 책임지고 있는 아스펜테크가 최근 보다 향상된 버전인 아스펜원 V 8.7을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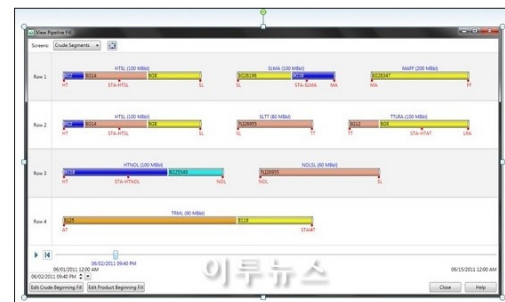
앨리슨 맥널티 아스펜테크 이사는 지난 13일 한국지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일, 가스 및 화학분야 기업들이 가장 고민하는 플랜트 운영성은 극대화와 의사결정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급망관리의 가시성 강화 등의 과제를 해결해 기업들의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새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출시했다"고 발표했다.

아스펜원 소프트웨어는 최적의 정유생산계획수립(플래닝)과 정유공장의 파이프라인 스케줄링 등을 돕는다. 구체적으로는 원산지별 원유 성분과 개별 정유·화학사들이 보유한 각 공장별, 유닛별 가동 선택에 따라 휘발유, 디젤 등 산출 비율이 상이한 정유생산을 플래닝 해준다. 또 원료구매와 선택, 생산, 파이프라인을 통한 물류이동 등의 스케줄링도 가능하다.

맥널티 이사는 "아스펜원 V 8.7의 PIMS-AO 소프트웨어는 멀티 스탠트 방식을 도입해 정유생산계획수립 과정에서 단 한번의 시스템 구동으로 최적화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자사 제품이 각 시나리오별로 구동해 8~10번에 걸쳐 결과를 찾았던 것과 비교해 속도를 크게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원료공급계획 담당자는 최소 8배 이상 빠르게 수익성이 가장 높은 계획 생성이 가능하게 된다. 그녀는 "확신있는 구매계획을 결정하고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스펜원 V 8.7의 페트롤리엄 스케줄러 소프트웨어는 원유와 생산품의 이동 경로를 정확하게 추적해 기업의 생산 및 공급 계획을 돕는 "파이프라인 스케줄링"을 지원한다.



▲ 아스펜원 V 8.7의 페트롤리엄 스케줄러 소프트웨어를 통해 파이프라인을 채운 시뮬레이션을 한 모습.

파이프라인 스케줄링은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파이프라인을 통한 원유 및 물류이동을 정확하게 추적하며,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해 준다. 이를 통해 정유·화학사는 탱크, 보조터미널을 포함한 정유 스케줄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스케줄링의 실수로 유조선이 원유탱크에 선적 못하고 대기할 경우 하루에 약 6만 달러의 손해가 발생한다.

맥널티 이사는 "향상된 스케줄의 가시화와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정유사 마다 연간 1100만달러 규모의 수익 개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아스펜원 V 8.7은 고급 공정 제어기의 자동 동작조정, 정유공장 파이프라인 스케줄링 기능 확장, 최적의 정유생산 계획 수립 기능이 추가 됐다.

이투뉴스 기자 paver@e2news.com